

성령 충만의 표징: 맑은 정신

성경말씀: 딤후2:1-10

믿음 생활의 기본, 근간, 핵심은 구원받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No!

구원받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

구원의 원동력 혹은 주체: 성령님, 그 뒤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자, 진리의 영(요14:16-17)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세상에는 옳은 것(진리)과 옳지 않은 것(허위/오류)이 공존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는가? 생각을 통해, 성경은 이것을 한 마디로 '맑은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딤후2:1-10, 맑은 정신, sober: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14번(형용사 12, 명사 2)

어근 '술 취하지 않음'

담배나 술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술의 피해는 크므로 목사는 가르쳐야 한다.

1.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킨다. '이미 버린 몸인데 다른 것도 좀 하면 안 돼?'

옛 사람 곧 육신을 자꾸 부추긴다. 자꾸 악을 향하게, 성적 타락

2.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속임수이다. 도파민의 증대, 중독

3. 남녀 간 사귄데도 결코 술을 먹지 않아야 건전하다.

4. '절제하면서 먹는 것은 OK', 마귀의 속임수, 장사가 없다.

5. 중독된다.

6. 오래 먹으면 몸과 뇌를 망가뜨린다. 독이다.

7. 결국 게으르게 만들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

8. 주님의 경고(잠23:29-35)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의 소유자(딤후21-10)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술 취함의 특징/모습을 알기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가르침

1절: 목사와 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고후13:8

2절: 나이든 남자들, 맑은 정신 소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

3절: 연로한 여자들, 그와 같이 맑은 정신 소유, 술 먹지 않는다.

4절: 젊은 여자들, 맑은 정신

6절: 젊은 남자들, 맑은 정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5).

2.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낸다(10).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잃은 사건(창3:1-7)

1절: 뱀은 간교하다(고후11:3).

2절: 의심, 3절: 여자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4절: 뱀의 확신, 5절: 하나님이 속이고 있다. 6절: 머뭇거리지 않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줌

딤후2:14, 그래서 여자들에게 맑은 정신(9), 해산 중에서도 맑은 정신(15)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 간교한 자, 의심, 하나님은 나쁜 존재, 더 좋은 것이 있다.

에덴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려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말세에는 더더욱 마귀가 힘을 쓰고 있다(계12:12).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발악

벧전5:8-9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벧전1:13,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로 인해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기능이 원활해야 한다.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학식과 상관없이 없다. 영적으로 맑은 정신의 소유자, 바르게 섬긴다.

치매는 치명적인 병: 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않는 것, 사람이 추해짐,

맑은 정신이 없으면 성도도 추해진다.

1. 구원의 문제: 바르게 생각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2. 성화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 돼지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벧후2:21-22).
3. 사회생활: 학교, 직장, 가정 등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4. 인생 문제: 학교, 배우자, 직장, 이사, 교회, 성경, 친구
5. 교회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생활(8):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 특히 여자들 정신이 울발라야 할 말, 안할 말 구분: 가장 중요한 것 Yes, No 구분
목회 해 보니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언어생활로 인한 소통의 장애, 마5:37, 약5:12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 목사와 사모, 대개는 말로, 교회를 비방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말만 열심히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아무도 건지지 못한다.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을 바르게 본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

1. 세상의 추세: 적그리스도의 세상, 진화론, 동성애, 양극화, 종교 통합, 유전자 조작, 인간복제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

어떻게 아이들 키울까, 아이들 교육, 교회, 건전한 가치...

2. 헌법 개정, 11조와 36조,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성적 지향 추가, 동성애, 동성 결혼 합법화

3.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 외부 국가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판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사상 해이, 세상의 역사와 추세를 바르게 보지 않는다.

현 시대 사람들은 지난 70년간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전 세대의 피눈물 나는 고통(육신적 정신적 고통)

1946년 8월 13일 동아일보 보도, 미군정청 여론국의 여론 조사, 8543명,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70% 사회주의,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모름 7%, 사회주의(공산주의) 77%

개화되면서 국민들의 피 속에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심이 진하게 흐르고 있다.

감사하게도 이런 경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바뀌어 지난 70년간 변영 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다시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온 세상 역사가 명백히 틀렸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

자주 국방하는 나라는 몇 안 됨, 은혜를 베푸 좋은 국가를 선택하여 합심해서 국방

성도들만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종교 통합 동성애 No 하듯이 사회주의 No!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의 우위를 가지고 평화적 통일(연방제 등 No!)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의 오른쪽을 택해야 한다.

결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구원, 성화, 사회생활 등 인생 전체 여정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데 달렸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인도해 주신다.

성경을 읽고 경전 서적을 읽고 바르게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말세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소유한 건강한 사람들의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맑은 정신,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교회, 바른 교육, 바른 사회, 바른 국가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